

마가목(*Sorbus connixta* Hedlund)

- 기원 : 장미과 (Rosaceae) 마가목
- 성미 : 性은 平하고 味는 甘하다.
- 성상 : 가운데 잎맥에 길고 가는 갈색 털이 있는것이 녹마가목, 작은잎이 13-15개이고 뒷면에 흰빛이 도는것을 당마가목이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제주도,강원도 의 산지에서 많이 자생합니다. 꽃도 예쁘고 열매는 여름에는 녹색으로 자라지만 가을의 붉은 열매 송이의 모습이 보기좋아 관상수로도 많이 심습니다. 예로부터 산삼 다음으로 마가목을 으뜸으로 여겨졌답니다 .그만큼 약효가 좋다는 말이겠지요. 마가목열매는 시큼털털하고,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평하고,줄기와 껍질은 맛이 쓰고 성질은 찹니다.
- 함유성분 : Sorbitol, p-o-coumaric acid, β -Sistosterol, aucuparin, methoxyaucuparin.
- 약리 작용 및 용도 : 하리, 방광병, 염료 / 마가목열매를 술로 담아오래 먹으면 병후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개선,인뇨,변비,근육강화 , 피로 회복에 큼효험이 있으며,잔가지나 껍질로 술을 담가먹어도 류마티스성 관절염, 신경통, 기침 등에 좋고 장기복용하면 무병장수한답니다. 술에 약한 사람은 마가목 열매를 가루로 만들어 먹어도 효과가 있는데 호흡기질환 ,기관지염, 기침,폐결핵,천식등에 특별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잔병치례를 하지않고 감기에도 잘 거리지 않는답니다. 마가목 껍질도 중풍, 고혈압, 위장병, 기침, 신경통, 류마티스관절염 등에 두루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마가목 줄기를 잘라 기름을 내어 약으로 쓸 수도 있는데 마가목 기름도 껍질과 같이 신경통, 관절염, 중풍 등의 여러 질병과 갖가지 피부병에 최고의 신약(神藥)이라 할 만큼 효험이 있답니다.마가목의 대표적인 효능은 손발 절임예방 ,콩팥 기능강화, 요도염 치료효과, 폐결핵 예방, 부종방지, 만성기관지염 치료라고 합니다.

